

프랑스어 완료시상 연구*

원유상** | 원광대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동사와 시간
 - 2.1. 동사의 내적시간과 형태소
 - 2.2. 동사의 시간도식
 - 2.3. 전이와 비전이 상황
3. 프랑스어 시상체계
 - 3.1. 문법-의미-어휘시상
 - 3.2. 총체-미완료-완료시상
 - 3.3. 상태-사건-과정
4. 완료시상의 의미치
 - 4.1. 사건적 가치
 - 4.2. 결과상태
5. 결론

국문초록

동사의 시간은 시제와 시상으로 현동화된다. 시제는 동사의 의미인 행위와 상태를 과거-현재-미래의 시점에 사행을 위치시키고 시상은 행

* 이 논문은 2015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대학교 유럽문화학부 프랑스문화언어 전공.

위와 상태의 전개양상을 보여준다. 사행의 전개양상이 시상의 의미치를 구성한다. 우리는 프랑스어 완료시상의 의미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완료시상의 형태소인 과거분사의 시간성, 동사에 내재하는 시간개념, 문장이 지시하는 상황의 전이와 비전이 자질을 고찰하였다. 프랑스어에서 완료시상은 총체시상 및 미완료시상과 대립하면서 보완한다. 완료시상은 사건적 가치와 결과 상태를 표상한다. 완료시상의 두 의미는 랑그에 속하는 언어기호들의 결합을 통제하는 화자의 의지에 의해 생성된다.

■ 주제어: 시상, 시제, 완료시상, 시상가치, 상태, 사건, 과정

1. 들어가는 말

동사는 그 어느 품사보다도 많은 범주와 관련되어 서로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어에서 명사가 성과 수의 범주만을 갖는 반면 동사는 시제, 시상, 인칭, 태 그리고 서법의 지배를 받는다. 동사의 범주인 시상과 시제는 시간 속에서 전개되는 사건을 지시하는 동사의 위상자질과 관련된다. 동사가 사용된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시상과 시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동사가 사용되는 환경에 대한 고찰은 동사의 의미파악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프랑스어 체계 내에서 완료시상이 다른 시상들과 어떤 상보적 기능을 하는지, 완료시상의 형태, 완료시상의 내적인 구성과 외적인 구성을 살피기로 한다. 내적인 구성은 동사 자체의 시간성을 의미하며 외적인 구성은 동사를 시간 축에 위치시키는 시제와의 결합을 말한다. 시제는 동사가 의미하는 상황(상태 혹은 행위)을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축에 고정시키는 동시에 이 상황의 전개과정(déroulement)을 한정한다. 동사 자체의 시간성은 랑그에 속하지만 시제는 화자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우리는 프랑스어 체계 내에서 완료시상이 생성되

고 발화상황에서 활용되는 과정을 살펴려 한다. 동사의 형태로부터 완료시상의 의미를 결정하는 조건에 이르는 순차적인 층위를 검토하면 완료시상이 프랑스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동사와 시간

동사가 지향하는 의미는 동작이나 상태이다. 동작이나 상태를 지시하는 의미소가 현동화¹⁾하기 위해서는 동사가 활용되어야 한다. 동사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동사는 인칭, 서법, 태, 시상 그리고 시제가 한정된다. 그런데 인칭과 태가 동사의 현동화 과정에서 동사의 외부에 존재하는 개념인 반면 서법, 시상 시제는 동사의 내부에 위치하는 범주들이다. 외부에 존재한다는 것은 동사의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사와 결합하게 될 주어는 동사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태 또한 화자의 선택사항이기는 하지만 동사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2.1. 동사의 내적시간과 형태소

귀스타브 기욤(Gustave Guillaume)은 심리역동학(psycho-mécanique)을 바탕으로 동사의 내적시간을 규명하였다. 인간의 정신과 언어현상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그의 이론은 언어를 인간의 인식과 분리된 의미체계로 간주하지 않는다. 언어 혹은 랑그를 기호의 체계로만 고려한다면 인공언어와 자연언어 간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인지가 언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가설이 심리역동학의 출발점이다. 기욤은 동사와 관련된 시간의 층위를 3단계로 구분한다. 그 층위는 첫째, 잠재적 시간(*temps in posse*)²⁾, 둘째, 되어지는 시간(*temps in fieri*)³⁾, 마지막으로

-
- 1) 현동화(actualisation)는 랑그 체계의 언어기호가 발화체(*énoncé*)에서 사용되기 위하여 거치는 발화행위의 과정이다. 잠재적 의미가 실재성을 획득하는 이 과정에서 명사는 한정사와 결합하여야 하고 동사는 활용되어야 한다.
 - 2) G.Guillaume, Temps et verbe, Théorie des aspects, des modes et des temps, Librairie Honoré Champion, 1970, p. 15.

실재의 시간(temps in esse)⁴⁾이다. 마지막 두 가지 층위의 시간은 우리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우리는 잠재적 시간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잠재적 시간은 동사에 내재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의 시간길이와는 관련 없다. 동사의 의미인 상황은 개시점(position initiale), 진행과정(positions médianes) 그리고 종결점(position finale)을 갖게 된다. 기움은 동사가 개시되어 종결되는 과정을 통하여 긴장(tension)을 갖는다고 했다. 이 개념은 동사의 내적 시간이 상황의 전개과정의 순간마다 달라지는 시간의 속성을 말한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사건이 진행되면서 풀어지거나 느슨해지는 어떤 힘이다. 사건이 시작하기 전,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사건이 완료된 이후의 순간에서 긴장은 각기 다른 양상을 띤다. 기움은 이 세 단계에서 동사의 인상(l'image verbale)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 개시점에서는 긴장의 상태가 최대치이다. 개시점을 t_0 라고 하면 t_0 의 구성은 <tension+0>이다. 여기에서 숫자 '0'은 긴장이 해소된 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행과정은 그 길이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긴장이 이루어진 부분과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의 합으로 구성된다. 즉 진행과정은 < $t_1 + t_2 \dots t_{n-2} + t_{n-1}$ >로 표시될 수 있다. 진행과정의 모든 순간에서 이전의 순간에서는 긴장이 해소되었고, 이후의 순간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서로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 순간들의 합이 진행과정을 구성한다. 종결점을 t_n 이라고 표기하기로 하자. t_n 은 <0+détension>의 성격을 갖는다. 숫자 0은 이에 해당하는 값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종결점에서 0은 긴장의 값이 제로라는 것을 의미한다. 긴장이 모두 완화되었으므로 종결점은 해소된 긴장만으로 구성된다. 동사마다 고유한 개별적인 의미치를 벗어나 실현되어야 할 동사의 인상(image verbale)을 기준으로 보자면 모든 동사는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3개의 순간(들)에 대응하는 3가지 형태소(morphème)를 갖게 된다⁵⁾.

A. 1. Tension seulement = infinitif

3) G.Guillaume, 위의 책, p. 29.

4) G.Guillaume, 위의 책, p. 51.

5) G.Guillaume, 위의 책, p.17.

2. Tension et Détension juxtaposées = participe en - ant
3. Détension seulement = participe passé

동사는 현동화되기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동사는 부정법, 현재분사 그리고 과거분사의 형태소를 갖는데 각각의 시간성은 (A)에서 요약된 바와 같은 시간성을 갖는다. 위의 형태소들이 갖는 동사의 시간성(temporalité)은 다음 예문들에서 확인된다.

- (1) Jean a envie d'écrire une lettre à sa copine.
- (2) Jean écoute la radio, en écrivant une lettre à sa copine.
- (3) Jean a écrit une lettre à sa copine.

완료시상은 3가지 형태소 중에서 동사의 과거분사와 관련된다. 완료시상은 <조동사+과거분사>의 형태소로 표현된다. 프랑스어에서 <조동사+과거분사>의 형태적 결합은 대과거(Plus-Que-Parfait), 중복합과거(Passé Surcomposé), 복합과거(Passé Composé) 그리고 전미래(Futur Antérieur)등으로 분기된다.

2.2. 동사의 시간도식

동사들이 갖는 시간성은 동사의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상태(État)는 변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갖는다. 상태는 처음과 끝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움직임 혹은 행위는 처음과 끝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간성의 변별성을 바탕으로 벤들러(Vendler)는 동사를 분류하였다. 동사가 갖는 시간의 위상 변별자질을 시간도식(time schema)으로 수렴하여 동사를 구분한 것이다⁶⁾.

B. (1) 상태동사(état)

6) Zenon Vendler, Verbs and times, in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p.98.

- (2) 행위동사(activité)
- (3) 종결지향동사 (accomplishment)
- (4) 종결동사 (achèvement)

네 부류의 동사들은 다양한 변별기준에 의해 서로 구분된다. 통사적-의미론적 기준에 의해 이 분류는 타당성을 갖는다. 실제 벤들러가 이러한 분류를 제안한 이후로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 분류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중 몇 가지 근거들을 중심으로 동사부류의 시간도식을 살펴보자. 빌메(Wilmet)가 제시한 근거에 의하면 상태동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⁷⁾. 상태동사에는 개시점과 종결점이 없다. 상태동사가 표상하는 상황은 역동성(dynamisme)이 없다. 그래서 진행형이나 명령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 (4) * Paul est en être étudiant à Lyon.
- (5) * Connais la France !

이 부류의 동사가 표상하는 상태는 변화(changement)를 내포하지 않는다. 변화는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 즉 상태를 표상하는 상태동사는 의도를 의미하는 부사와 같이 사용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변화를 표상하는 시제연산자인 근접과거나 단순과거와 결합할 수 없다.

- (6) * Mina sait volontiers qu'Obama est le président des États Unis.
- (7) * Paul vient de connaître le danger de la guerre.

변화를 표상하지 않는 상태동사의 특성은 역동성이었다. 행위동사와 중

7) Marc Wilmet, Aspect grammatical, sémantique, lexical, Marc Wilmet, Aspect grammatical, sémantique, lexical : un problème de limites », 『La notion d'aspect』, Université de Metz, pp.61-63. 빌메는 être, exister, savoir, connaître, aimer를 상태동사라고 한다.

결지향동사는 역동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상태동사와는 다르다. 그래서 행위동사와 종결지향동사는 명령법도 가능하고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와도 자유롭게 결합한다. 그런데 행위동사와 종결지향동사는 완료시상의 구성에서 시간부사와 결합하는 양상이 다르다.

- (8) a. Jean s'est promené pendant 2 heures.
 b * Jean s'est promené en 2 heures.
 (9) a. Jean a écrit une lettre en une heure.
 b * Jean a écrit une lettre pendant une heure.

위의 예에서 비문과 정문의 기준은 상황소(circonstant)로 사용된 시간부사구의 전치사 'pendant'과 'en'과의 결합가능성이다. 동사의 사행(procès)이 전개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행위동사와 종결지향동사는 시간도식이 서로 다르다. 행위동사는 종결지향동사와는 달리 완료에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행위가 발생한 시간길이를 필요로 한다. (8a)는 행위가 발생한 시간을 표상하는 반면 (8b)에서 시간부사구는 완료에 소요된 시간길이를 표상한다. 그런데 (8a)에서 사용된 복합과거 발화체가 표상하는 상황은 완료(achèvement)가 아니라 종결(fin)이다. 따라서 행위동사는 완료에 필요한 시간길이를 의미하는 전치사 'en'과 결합될 수 없다. (9a)와 (9b)에는 종결지향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사행의 시간길이를 의미하는 전치사 'pendant'과는 결합할 수 없고 완료를 의미하는 전치사 'en'과 결합해야만 정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의 예를 통해 완료와 종결의 차이를 알아보자. '장(Jean)'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한 화자는 다음 두 발화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10) a. Jean marche.
 b. Jean sort.

현재시제를 사용한 두 개의 발화체는 공통적으로 '장(Jean)'이 걸어가고 있는 구체적 상황을 기술(description)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위는 외견상 동일해 보이지만 시간도식의 관점에서는 서로 다르다.

(10a)는 매순간 행위가 동질적인 것이지만 (10b)에서 행위들은 이질적인 것이다. 동질적이라는 것은 한 행위와 그 다음 행위가 같은 성격이라는 말과 같다. 이질적이라는 것은 한 순간의 행위와 그 다음 행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시간이 경과한 다음 화자는 다음 두 발화체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11a) Jean a marché.

(11b) Jean est sorti.

‘장’이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발화된 (11a)는 언제나 참(vrai)이다. 이와 달리 (11b)가 발화되려면 어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하여 (11b)가 발화되었다고 하자. 복합과거를 사용한 두 발화체가 지향하는 상황은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이유는 동사의 시간도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동사구 ‘a marché’는 걸음을 멈추었음을 의미하지만 동사구 ‘est sorti’는 어떤 경계를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어떤 경계는 의미론적 문턱(seuil sémantique)인데 이 순간이 완료의 순간이다. 행위동사에는 넘어서야 할 의미론적 문턱이 없지만 종결지향동사는 의미론적 문턱을 넘어서기 이후에만 완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행위동사는 언제라도 종결될 수 있지만 종결지향동사는 의미론적 문턱을 넘어서기 전에는 완료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비록 완료시상을 지시하는 복합과거로 사용되었다 해도 두 동사의 의미는 서로 다른 것이 된다.

2.3. 전이와 비전이 상황

동사의 시간도식에 근거하여 벤들러가 동사를 4개의 부류로 분류했다면 베트(Vet)는 이러한 분류에 내재하는 시간특성을 보다 단순화하여 동사의 시간성을 보여준다.

어휘적 의미에 따라 어느 부류의 동사는 넘어서야할 의미론적 문턱을 포함하게 된다. 벤들러의 분류를 인용하여 말하자면, 상태동사와 행위동사는 어휘적 의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간도식을 갖는다. 이 부류에 속하는 동사들은 의미론적 문턱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동사가 완료시상을 갖는 경우 사행은 종결된 것이다.

그런데 종결지향동사와 종결동사는 의미론적 문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완료시상으로 사용되면 사행은 완료된 것이다. 종결과 완료는 완료시상으로 된 발화체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자질이다. 베틀은 동사가 지시하는 이러한 상황을 전이상황(situation transitionnelle)과 비전이 상황(situation non transitionnelle)이라고 명명했다⁸⁾. 전이상황과 비전이상황은 다음 예문들이 지시하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Le papier jaunissait.

(13) Le papier était jaune.

(12)의 발화체는 종이가 변색되어 가는 ‘과정’을 지시하는데 (13)은 종이가 변색되어 있는 ‘상태’를 지시한다. 앞의 경우는 전이상황이고 뒤의 경우는 전이가 감지되지 않는 상태를 표상한다. 다음의 예는 전이-비전이 상황과 그 의미효과를 보여준다.

(14) Chantal est sortie. (en ce moment)

(15) * L'enfant a maintenant pleuré.

(14)에서 사용된 동사구 ‘est sorti’는 완료된 상황을 지시하고 (15)의 동사구 ‘a maintenant pleuré’는 종결된 상황을 의미한다. 그런데 (15)는 비문이다. 그 이유는 동사 ‘pleurer’는 행위동사로서 완료시상을 나타내는 복합과거를 시제연산자로 사용하면 동사의 어휘적 의미가 종결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그 어떤 추론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사 ‘maintenant’은 이 문장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부사 ‘maintenant’은 발화순간(moment de parole)과 일치하고, 동사구 ‘a pleuré’가 의미하는 종결점 이후의 상황과 겹친다. 의미론적 문턱을 갖는 동사들, 즉 전이적 상황을 지시하는 동사들은 단순히 사행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사행의 이전과 이후의 순간들을 내포하게 된다. 이전의 순간들을 전제

8) Co Vet, *Temps, aspects et adverbess de temps en français contemporain*. Essai de sémantique formelle, Genève, Droz, 1980. p.62.

사행구간(intervalle présupposé)이라고 하고 이후의 순간들을 함의사행구간(intervalle impliqué)이라고 한다. 전이적 상황과 비전이적 상황을 의미하는 동사들이 미완료시상으로 사용될 경우 전혀 다른 추론이 이루어진다.

(16) Il nageait. → Il a nagé.

(17) Il se noyait. ⇨ Il s'est noyé.

(16)에서 '수영하는' 행위는 언제라도 멈추면 '수영을 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와는 달리 (17)의 행위는 'Il s'est noyé'을 함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미론적 문턱을 넘어서지 않는 한 이러한 추론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예문 (11a) Jean a marché, (11b) Jean est sorti에 관해서도 동일한 논의가 가능하다. (11a)는 사행이 전개되는 순간들, 그리고 사행이 종결된 순간을 전후하여 그 어떤 논리적인 추론을 허용하지 않는다. (11a)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걷기를 멈추었다'라는 것뿐이다. 한편 (11b)는 사행의 이전의 순간들, 즉 전제사행구간으로, 'Il était à l'intérieur'라는 전제를, 사행이 완료된 이후의 순간들, 즉 함의사행구간으로서 'Il était à l'extérieur'를 추론할 수 있다. 즉 전이상황을 지시하는 동사들은 전제와 함의를 갖는 것이다. 전제와 함의는 시간도식과 관련을 맺는다.

전제와 함의를 가질 수 있는 동사의 특징으로는 반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단 '나갔다'라는 상황에서 행위가 반복이 되려면 '다시 들어왔다'가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에 행위동사는 언제라도 반복이 가능하다. '걸었다'라는 종결점에서 언제라도 '다시 걷는다'는 사행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간특성은 프랑스어 복합시제에서 조동사의 선택을 용이하게 해준다. 복합시제 조동사로 사용되는 'être'는 자동사 중에서도 전이적 상황을 지시하는 동사들과만 결합한다. 자동사이지만 비전이적 상황을 지시하는 동사, 예를 들어 marcher, courir, manger, chanter, dormir 등은 'avoir'를 조동사로 선택해야 한다. 조동사 'être'와 'avoir'의 선택은 동사가 전이적 시간도식을 갖는지의 여부, 그 결과로서 반복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전이-비전이 상황은 이처럼 통사적 제약에까지 관여하는 개념이다. 통사적 제약뿐만 아니라 전제와 함의의 추론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시간도식은 발화체의 해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3. 프랑스어의 시상체계

완료시상의 가치를 파악하려면 이 시상이 다른 시상들과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개별언어인 프랑스어 안에서 시상을 분류하여 시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시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 다양한 접근 방식 중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에 주목하려 한다. 첫째는 발화체를 구성하는 언어 기호들이 시상의 한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둘째로 다른 개별언어, 예를 들어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과 비교를 통해 프랑스어의 고유한 시상체계 설정하고, 세 번째로 자연언어를 통해 표상되는 사행의 위상적 분석을 통한 접근방식이 그것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 프랑스어 시상의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진행되고 있지만 복잡다기한 이 방식들도 사실상 다음 두 가지 방법론에 근거하고 있다. 프랑스어의 현상으로부터 시상의 분류로 나아가는 방법과 사건의 위상적 해석에서 프랑스어의 현상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3.1. 문법-의미-어휘시상

빌메(Wilmet)는 발화체의 시상이 매우 다양한 언어기호의 함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동사구를 구성하는 통사 성분들은 조동사와 동사, 이 둘을 묶는 시제연산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동사의 어휘적 자질에 의해 목적보어가 추가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한정하는 상황소에 의해 동사 본래의 시상이 중화되거나 변형되고도 한다. 발화체 층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복잡다기한 양상을 빌메는 문법시상, 의미시상 그리고 어휘시상으

로 일차적으로 분류하여 각 부문에서 다시 시상을 재분류했다.

문법시상 부문에서 빌메는 발화체의 시제를 분석한다. 그는 프랑스어에 존재하는 모든 시제에 대하여 시제적 가치와 시상적 가치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목록을 작성했다.

C. 문법시상(목록 / 시제적 가치 / 시상적 가치)

- sut / 과거 / Global(총체)
- sait / 현재 / Sécant(분할)
- saura / 미래 / Global(총체)
- savait / 과거 / Sécant(분할)
- a su / 전현재 / Sécant extensif(완료분할)
- aura su / 전미래 / Global extensif (완료총체)
- avait su / 전과거 / Sécant extensif(완료분할)

우리는 앞에서 상태동사는 명령법이나 단순과거, 근접과거로 사용하기에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었다. ‘savoir’와 같은 상태동사 부류의 동사는 현재시제나 반과거 시제로 사용되는 것이 의미론적 관점에서는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이 동사가 단순과거나 단순미래 시제연산자와 결합하게 되면 어떤 상황을 지시하게 될까. 빌메의 논의에 의하면 단순과거나 단순미래 시제연산자의 총체시상 기능에 의해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다(된다)’는 상황이 의미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변화(changement)를 감지할 수 있다. 지속하려는 동사의 시간도식과 총체시상 간에 일종의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동사 ‘savoir’가 완료시상과 같이 쓰이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동사의 시간성은 상태이므로 지속하려는 속성을 갖는다. 그런데 시제연산자에 의해 지속하려는 속성이 종료 혹은 완결된다. 그렇다면 동사 ‘savoir’가 복합과거, 대과거, 전미래와 결합하면 그 의미치는 ‘알다가 잊어버린 것’이 된다.

의미시상 부문에서 빌메는 벤들러의 분류방식을 수용한다. 여기에서 4개의 분류가 만들어진다. 어휘시상 부문에서 빌메는 조동사, 부사, 그리고 접두사와 접미사를 시상에 기여하는 성분으로 간주한다. 어휘시상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D. 어휘시상 (목록/시상적 가치)

- commencer à / Inchoatif(기동상)
- continuer à / Continuatif(계속상)
- maintenant / Orcentrique(求心上)
- alors / Lorcentrique(遠心上)
- mener, amener / Duplicatif(중첩상)
- cligner ,clignoter /Multiplicatif(중복상)

빌메는 이처럼 시상의 한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성분들을 분석하였다. 그래서 발화체는 한 가지 시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 즉 시제, 동사의 시간성, 조동사 등에 의해 다양한 시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 예문이 빌메의 이러한 논의를 보여준다⁹⁾.

(18) Il commence à m'énerver.

- 문법시상 : sécant incident (동시 분할상) ← commence (현재시제)
- 의미시상 : imperfectif (미충체상) ← énerver (벤들러의 행위동사)
- 어휘시상 : inchoatif (기동상) ← 조동사 commencer à + V (기동상)

발화체 수준에서의 시상은 이외에도 직접목적보어의 유무, 직접목적보어의 한정 방식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시상 분류의 목록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설명력있는 분류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3.2. 총체-미완료-완료시상

콤프리(Comrie)는 프랑스어의 과거시제의 의미는 무엇보다 시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거시제가 사용된 다음 예문들이 현재시제로 변형되면 어떤 의미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자.

9) Wilmet, M., 앞의 논문, pp.64-65.

- (19) Un homme s'amenait sur la route, il conduisait trois moutons.
Il aperçut l'âne chargé et dit....
- (20) Un homme s'amène sur la route, il conduit trois moutons.
Il aperçoit l'âne chargé et dit....

(19)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서로 다른 시제, 즉 단순과거와 반과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20)에서 모든 발화체는 현재시제(정확하게는 서술의 현재(narrative present))를 사용하고 있다. (19)와 (20)의 차이는 단순히 시제의 차이로 귀결될 수 있을까. 콤피는 그 차이는 시상이라고 단언한다¹⁰⁾.

In French, then, and likewise in other Romance languages, the morphological restriction of overt aspect differentiation to the Past Tense means that a priori there can be no aspect distinction in the narrative Present.

과거시제를 사용할 때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선택해야 했던 시제연산자의 의미론적 제약이 현재시제에서는 모두 중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콤피는 프랑스어 과거시제의 기능은 시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콤피는 프랑스어의 시상을 총체-미완료-완료로 분류했다¹¹⁾. 그런데 과거시제의 시상에만 집중하여 프랑스어 시상체계를 설정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콤피는 의미론적 관점에서 새로운 시상체계를 제시한다. 이 시상체계는 3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분법의 대립으로 이루어진 두 쌍이다. 즉 총체/미총체시상과 완료/미완료시상이 프랑스어의 의미론적 시상체계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상에 접근하는 콤피의 유연한 태도를 볼 수 있다. 콤피가 제시한 두 개의 시상체계, 하나는 총체-미완료-완료, 다른 하나는 총체/미총체, 완료/미완료의 대립은 그의 연구방식의 차이

10) Comrie, Bernard,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 74.

11) Comrie, p.126. 시상용어인 '총체-미완료-완료'는 각기 'Perfective-Imperfect-Perfect'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에서 비롯한다. 프랑스어 과거시제의 시상에 근거하여 분류하는 방식은 언어기호로부터 개념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의미 혹은 개념을 미리 상정한 후 언어기호들의 배열 혹은 기능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방식에 의해서 두 번째 시상체계를 생성하였다¹²⁾.

우리가 콤리의 시상체계를 거론하는 이유는 그가 프랑스어를 포함하여 여러 언어들에 대상으로 시상을 연구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어는 콤리의 연구대상 중 하나였다. 인간이 언어외적인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려면 언어가 사용되는 현상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콤리는 여러 언어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사건 혹은 상태에 대한 언어표상을 도식화하려 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총체-미완료-완료와 총체/미총체시상과 완료/미완료시상이라는 분류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연구방식, 즉 언어기호에서 개념을 지향하는 전자의 분류방식과 개념에서 출발하여 이 개념에 상응하는 언어기호의 배열을 연구한 결과로서 확정된 후자의 분류방식에 공동으로 들어있는 시상은 총체와 완료이다. 총체와 완료와 대립을 이루는 시상은 미총체와 미완료이다. 완료는 총체와는 형태적으로 다르다. 뿐만 아니라 완료는 미총체, 미완료 시상을 나타내는 형태들과도 다르다. 완료는 모든 언어에서 '조동사+과거분사'의 형태를 갖는다. 완료가 표상되기 위하여 복합형태, 즉 '조동사+과거분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이 시상의 연구에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복합형태를 아닌 단순형태로 표상되는 기타의 시상들은 어떻게 서로 구별될 수 있을까. 물론 동사의 시제 형태에 의한 분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제 형태와 이 시제에 해당하는 시상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단순과거에 총체시상, 반과거에 미완료시상, 복합과거에 완료시상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상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형태에서 개념을 지향하는 이 방식은 불완전함을 드러낸다. 예

12) Jean-Pierre Desclès, Hee-Jin Ro, *Opérateur aspecto-temporels et Logique combinatoire*, Mathematics and Social Sciences, p.45. 데클레와 로희진이 수행한 시상연구의 두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Une démarche onomasiologique part des significations pour engendrer les agencements des signes qui les expriment ; une démarche sémasiologique part des agencements de signes pour construire une représentation de sa signification."

를 들어 반복시상이나 지속시상, 진행시상은 어떤 형태소에 의해 표상될 수 있을지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기동상과 지속시상을 표상하는 형태소는 복합시제(temps composé)이 아니라 단순시제(temps simple)이다. 그런가하면 상태는 복합시제에 의해서도 표상될 수 있다. 시상이라는 문법범주가 제기하는 이러한 복잡다기함이 명확한 연구 태도를 요구한다. 즉 언어기호에 천착할 것인지, 아니면 시상을 미리 분류한 후에 언어를 연구할 것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콤리의 분석에서도 이러한 연구방식이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총체와 완료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핵심적 시상이므로 별도로 하자. 그렇다면 미완료시상과 미총체시상은 동일한 것인가, 서로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질문들을 요약하자면 시상연구는 다음의 과제가 제기된다.

시상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언어기호 혹은 발화체는 단일한 시상만을 갖는가 아니면 여러 시상을 의미하는가. 하나의 시상에 대립하는 시상은 다른 시상과 대립하는 시상과 동질적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boucle bouclé) 이러한 질문은 외국어 번역이나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시상은 언어와 인식과 세계의 관계에는 단절과 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달리 해석할 수 있고 동일한 형태의 언어기호가 서로 다른 의미를 표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언어기호와 의미작용만을 고려하면 이런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제시할 수 없다. 언어외적인 세계를 인간의 인지가 수용하는 방식을 규명하는 것이 시상을 규명하는 좋은 방식일 수 있다.

3.3 상태-사건-과정

동사의 의미작용은 상태나 행위의 표상을 지향한다. 동사는 활용되면서 상태나 행위를 현재의 순간을 기준으로 선행-동시-후행으로 표상한다. 이런 관계는 과거-현재-미래로 이해된다. 그런데 과거-현재-미래의 시제 가치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동사의 표상이 필요하다. 상태나 행위의 발생, 진행 혹은 지속, 종결 등이 충분히 재현되어야 언어에 의한 세계의 표상이 이루어진다. 발생으로부터 종결에 이르는 과정 중 어느 순간을 인지가 포

착하여 언어로 재현한 것이 시상이다. 위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건은 발생-진행-종결의 세 단계를 갖는다. 이 과정은 언어현상과 관련 없는 물리적인 현상이다.

인지는 외부세계의 현상을 이와 달리 포착한다. 데클레(Desclès)는 인지-언어-세계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동사가 세계를 표상하는 방식의 연구에 천착해온 언어학자이다. 그는 동사가 갖는 시간의 문제들을 연구했다. 시제의 의미작용이 그 중 하나였다. 프랑스어의 시제들이 왜 다양한 의미를 갖는지를 연구한 결과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언어기호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의미해야할 것은 거의 무한적이다. 그래서 언어는 다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데클레는 사건을 해석하여 메타언어적인 논리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겪은 난관을 다음과 같이 토론했다.

“시상의 연구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용어의 복잡성이 한 가지 이유이고 개별 언어 연구에 사용되는 용어 간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 또 다른 이유이다¹³⁾.”

시상과 관련하여 데클레는 명확한 입장을 취한다. 언어기호의 형태-통사에서 시작하여 논리-문법적 표상, 분석의 단계, 발화조건, 동사의미의 형식화, 그리고 언어사용과 인지와 의도를 표상하려는 것이다¹⁴⁾. 이러한 작업을

13) Jean-Pierre Desclès, Hee-Jin Ro, 앞의 논문, 40페이지.

“La notion d’aspect dans les langues est difficile à cerner, une des raisons étant la multiplicité des terminologies et quelques fois la confusion entre des terminologies grammaticales employées par une langue et une autre langue.”

14) 위의 논문, 41페이지.

(1) niveau des configurations morpho-syntaxiques superficielles de la diversité des langues, (2) niveau des représentations logico-grammaticales (3) niveau de l’analyse des diathèses et des thématisations (4) niveau de l’analyse et des représentations des conditions énonciatives (5) niveau des représentations formelles des significations des prédicats lexicaux (6) niveau de l’intégration des conditions énonciatives (7) niveau des représentations cognitives.

위하여 데클레는 동사가 표상하는 상태와 행위가 발화자의 인지에 포착된 상태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 E. 1. L'état
- 2. L'événement
- 3. Le processus

3가지 부류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 변별자질들은 사행구간, 순간, 경계, 열림과 닫힘, 왼쪽과 오른쪽이다. 순간은 사행구간을 구성한다. 경계는 사행구간의 개시점과 종결점에 해당한다. 열림과 닫힘은 경계의 개방-폐쇄에 관련된다. 왼쪽은 시간의 방향에서 과거, 오른쪽은 시간의 미래를 의미한다. 상태(état)는 변화나 움직임이 없고 개시점과 종결점도 없다. 이 상황은 반과거나 현재시제로 쓰인 상태동사가 표상하는 상황과 일치한다. 사건(événement)은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 사이에서 발생한 전이(transition)를 표상한다. 과정(processus)은 개시점에서 변화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상황이다. 시작을 했지만 종결점에 이르지 않은 변화를 표상한다. 3부류의 상황이 표상하려는 것은 화자의 인식이다.

4. 완료시상의 의미치

사건은 발생한 후 계속되거나 반복되거나 다른 사건으로 이행된다. 인지에 의해 포착된 사건은 언어를 통해 전달되기 위하여 분절되어야 한다. 언어는 두 개의 사건을 하나의 동사로는 표현할 수 없다. 완료시상 역시 하나의 사건만을 재현한다. 완료시상은 복합시제(temps composé)의 형태소로 표상되는 시간양상이다. 완료시상이 표상하는 순간은 사행의 종결점이다. 상태동사와 행위동사는 시간도식에 종결점이 없는 동사부류이다. 종결지향동사와 종결동사에는 종결점이 내재한다. 의미론의 수준에서 보면 종결점이 없는 동사와 종결점을 갖는 동사가 완료시상으로 사용되면 다음과 같은 의미효과를 보여준다.

F. 동사의 행위양상과 시상의 관계¹⁵⁾

Modalité d'action (lexème)	Aspect (morphème)
Perfectif : orientation vers un état ou transition à un état.	Perfectif : aboutissement à l'état certain
Imperfectif : action non orienté vers un état.	Perfectif : action fermée (terme sensible)

마르탱(Martin)의 분석에 의하면 종결점이 내재하는 동사(Perfectif)는 그 자체로서 어떤 상태나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동사가 완료(Perfectif)시상으로 사용되면 어떤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을 표상한다. 어떤 상태를 지향하지 않는 동사(Imperfectif), 즉 종결점이 없는 동사가 완료시상으로 사용되면 닫힌 행위를 의미한다. 닫힌 행위와 상태에 도달이라는 표현은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일상언어인 까닭에 아쉽게도 마르탱의 분석이 전달하려는 내용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렵다.

테클레는 완료시상을 갖는 복합과거는 적어도 두 개의 의미치를 갖는다고 한다. 하나는 사건적인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선행하는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결과 상태이다¹⁶⁾.

베트는 완료시상의 가치를 동사의 시간성과 발화순간과의 관계로 파악한다. 상태동사와 행위동사는 완료될 경우 비전이 상황을 의미한다. 종결점을 갖는 동사가 완료시상으로 사용되고 발화순간과 일치하는 참조점이 제시되면 전이 상황이 제시 된다¹⁷⁾.

15) Robert Martin, Temps et aspect, Édition Klincksieck, 1971, p.185.

16) Jean-Pierre Descès, Hee-Jin Ro, 앞의 논문, p.59

Opérateur aspecto-temporels et Logique combinatoire, Mathematics and Social Sciences (49e année, n° 194, 2011(2), Laboratoire LaLIC (Langues, logiques, Informatique et Cognition), Université de Paris-Sorbonne, “Il renvoie à au moins deux valeurs : une valeur événementielle et une valeur d'état résultant de l'événement contigu antérieur.” 59 페이지.

17) Co Vet, 앞의 책, p.62.

4.1. 사건적 가치

완료시상은 사행의 종결점에서 포착한 상황을 표상한다. 종결점 이전의 상황은 완료시상이 전달할 수 없는 시간 영역이다.

(20) Paul a vu son amie ce matin.

(21) J'ai lavé la vaisselle hier soir.

이 두 예문은 과거의 사건을 지시한다. 사건을 고려하는 화자의 참조점은 과거에 놓여있다. 완결 이후의 상황은 암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사건 ('a vu', 'ai lavé')은 발화순간인 현재와는 단절된다.

(22) Le chasseur a vu le daim puis ensuite il a épaulé son fusil et tiré sans
pouvoir l'atteindre.

이 예문에서 제시되는 행위는 모두 3개(a vu, a épaulé, tiré)인데 그 행위들은 전-후 관계에 놓인다. 그래서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 데클레는 이 상황을 사건(événement)이라고 하고, 발화체의 완료시상은 사건적 가치(valeur d'événement)을 갖는다고 한다¹⁸⁾.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이 계기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단순 과거에 의해서도 묘사될 수 있다.

(23) a. J'ai été agressé alors que je me promenais sur une voie publique.

b. Elle a quitté son pays avant la guerre.

c. Après la mort de ma mère, mon père a vendu la maison.

복합과거가 정과거(aoriste, prétérit)의 가치를 갖는데 바로 (23)의 상황이

18) Jean-Pierre Desclès, Hee-Jin Ro, 앞의 논문, p.59.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복합과거로 된 문장이 동시성이나 전후관계를 의미하게 되면 사건적인 가치로 해석되는 것이다. 완료시상이 사건을 의미치로 갖는 경우, 동사의 시간도식은 상황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베트(Vet)의 논의에 의하면 아래의 예문이 지시하는 상황은 비전이적인 상황이다. 행위동사는 전이상황을 표상할 수 없다. 동사가 표상하는 행위의 종결점 이후를 함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3) * L'enfant a maintenant pleuré.

(24) * Maintenant il l'a admirée.

동사의 어휘적 의미는 연속적인 두 개의 상황을 동시에 표상할 수 없다. 그런데 (23), (24)의 예문에는 완료시상에 의해 설정된 종결점과 화자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참조점(point référentiel)¹⁹⁾에 의해 두 개의 상황이 표상된다²⁰⁾. 동사구('a pleuré', 'a admirée')가 의미하는 종결점은 현재순간에 이전에 위치한다. 'maintenant'은 사건을 인식하는 화자의 참조점으로 기능하는데 그 위치는 발화순간과 일치하는 현재이다. 이 문장에서 화자가 상황을 고려하는 관점은 종결점과 현재라는 두 순간이다. 그런데 이 예문들의 동사는 행위동사들로서 함의의 사행구간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부류의 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참조점이 동사의 행위 종결 혹은 완료 이후에 놓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장들은 비문이다.

그렇다면 종결지향동사는 사건적 가치인 완료시상을 가질 수 있을까. 다음 문장에서 종결지향동사의 시상은 사건적 가치로 해석된다.

(25) Jeanne est sortie tôt ce matin, mais elle a manqué son train.

종결지향동사는 전이적 상황을 표상할 수 있다. 그런데 (25)에서 'est

19) 참조점은 화자가 상황을 인식하는 순간이다. 참조점과 발화순간과의 관계는 완료시상의 의미치를 긴밀히 연관된다. 참조점이 사행구간에 위치하면 사건적 가치를 갖게되고 참조점이 발화순간과 공시를 이루면 완료시상은 결과적 상태의 의미치를 갖는다.

20) Co Vet, 위의 책, p.85.

sortie'를 사건적 가치의 완료시상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뒤따르는 문장과 더불어 사건들의 전-후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발생한 전-후 사건들은 발화순간인 현재와 관련되지 않는다.

4.2. 결과상태

전이 상황(situation transitionnelle)과 비전이 상황(situation non transitionnelle)은 완료시상의 해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전이 상황은 의미론적 문턱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 의해 표상된다. 그러한 속성을 갖는 동사는 종결지향동사와 종결동사 부류에 속한다.

(26) a. Chantal est sortie hier soir.

b. Chantal est sortie en ce moment.

위의 예문은 2개의 상황보어(hier soir, en ce moment)와 자유롭게 결합한다. (26a)처럼 상황보어가 과거의 순간을 의미하면 사행구간 이후를 고려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26b)에서 'en ce moment'은 발화시점과 일치한다. 동사 'est sortie'의 행위는 발화시점에 이전에 이루어졌다. 화자가 고려하고 있는 순간은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순간이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행구간 이후에 생성되는 순간들은 함의의 사행구간(intervalle impliqué)이다. (26b)에서 결과적 상태는 빈 공간이다. 표상된 상황은 앞선 행위(est sortie)의 결과이다. 함의의 사행구간을 제시한 화자는 이 시간구간에 무엇을 표상하려 할까? 함의의 사행구간은 결과적 상태(État résultant)가 점유하는 구간이다. 함의의 사행구간을 생성한 예문은 그 자체로는 이 구간에 어떤 행위나 상태를 투사하지 못한다. 다른 발화체의 상황에 의해 이 구간이 점유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일종의 원인(cause)과 결과(effet)라는 논리관계를 구성한다.

(27) J'ai terminé mes travaux : je peux partir en vacances.

두 발화체는 원인과 결과의 상황을 보여준다. '내가 휴가를 떠날 수 있음

은 내가 작업을 마쳤기 때문'이다. 완료시상에 의한 상태는 발화상황에서 '내가 휴가를 갈 수 있는 조건'을 구성한다. 완료하기 이전과 작업을 하는 동안은 작업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완료순간은 전이점을 이룬다. '휴가를 떠날 수 있는' 상태는 완료된 순간 이후에 가능해졌다.

(28) Enfin, le chasseur a vu le daim que tous les enfants du village avaient

déjà vu : il a sauvé l'honneur !

여기에서 'a vu le daim'에 의해 제시된 상황은 과거의 행위이다. 이 행위의 해석이 사건인지, 결과적 상태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a vu le daim'의 시상의 가치는 이어지는 상황 'il a sauvé l'honneur'에 의해 드러난다. 이 상황이 없다면 'a vu le daim'의 시상 가치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상황은 화자에 의도에 의해 제시되었다. 화자의 인식, 의도가 상황의 해석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²¹⁾. 화자의 의도가 시상을 한정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다음 예문을 통해 확인된다.

(29) Beethoven a composé neuf symphonies.

(30) * Beethoven a déjà composé neuf symphonies.

(29)는 베토벤이 교향곡 9개를 작곡했다는 사건을 기술한다. (30)에는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30)에서 부사 'déjà'는 베토벤이 추가적으로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의한다. 이

21) 화자는 과거의 사건을 서로 다른 시제를 사용하여 진술하는 경우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음의 두 예문이 보여준다. a. L'année dernière, je déménageais. b. L'année dernière, j'ai déménagé. (a)는 'Je n'ai pas pu travailler l'année dernière : je déménageais'라는 것을 의미하고, (b)는, 'Quand as-tu déménagé?'라는 질문에 대한 응수로 사용될 수 있다. 작년이 라는 과거시점과 행위를 논항으로 보면, (a)는 시점이 주제어(thème)이고 행위가 서술어(propos)이다. (b)는 이와는 달리 행위가 주제어이고 시점이 서술어로 제시된다.

런 종류의 함의는 베토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현재 이 예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실성에 근거할 때 참(vrai)이 아니다.

5. 결론

시상은 동사의 활용형(완료시상의 경우 조동사와 과거분사), 상황소, 목적보어 등의 언어기호와 시간도식과 같은 의미 그리고 시제연산자와 같은 문법성분이 결합하여 생성되는 문법범주이다. 시상은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필수적 의미요소이다. 프랑스어 과거시제들이 갖는 다양성은 시상의 다양성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완료시상이 갖는 의미치를 규명하려고 했다.

동사와 시간개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는 시간과의 연관성을 형태소와 시간도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동사의 형태소로는 부정법,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있는데 형태소가 지닌 시간의 양상은 서로 다르다. 기욤(Guillaume)은 동사 이미지가 시간 축에 전개되는 양상을 ‘긴장’, ‘긴장+ 해소된 긴장’, ‘해소된 긴장’으로 분석하였다. 해소된 긴장을 표상하는 과거분사가 완료시상의 형태소이다. 동사는 그 어휘적 의미에 따라 시간양상을 달리한다. 벤들러(Vendler)는 시간도식 개념과 통사-의미론적인 기준에 의해 동사를 분류하였다. 베틀(Vet)는 벤들러의 분류를 다시 전이-비전이 상황이라는 개념으로 동사와 문장이 의미하는 상황을 구분하였다. 행위동사와 상태동사는 비전이 상황만을 의미하지만 종결지향동사는 전이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프랑스어의 시상체계내에서 완료시상의 위상은 다른 시상들과의 상보적 역할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빌메(Wilmet)는 문장의 층위에서 동사의 의미, 시제 그리고 통사적 구조로 구분하여 문법-의미-어휘시상을 설명한다. 빌메의 구분은 문장의 구성성분들이 시상을 한정하는 양상을 설명한다. 문장의 성분들로부터 추출된 시상의 의미치는 프랑스어 학습과 해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콤리(Comrie)는 프랑스어 시제에 의해 구현된 시상을 분류 하였다. 총체와 완료시상을 분류의 근거로 삼아 총체-미총체 시상, 완료-미완료시상의 대립으로 프랑스어 시상체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데클레(Declès)는 언어가 표상하는 상황을 상태-사건-과정으로 구분하였다. 데클레의 작업은 개념을 사전에 설정한 후 언어현실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빌메나 콤리의 연구방식과는 구분된다. 빌메와 콤리는 프랑스어 문장과 시제를 관찰하여 개념을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방법론과 그 효과성에 관한 논의는 별도의 기회를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완료시상은 사건적 가치와 결과 상태를 의미치로 갖는다. 사건적 가치는 행위와 발화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결과 상태는 완료 이후의 사행구간이 함의되는 상황이다. 베트는 결과 상태가 전이동사들에 의해 제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주장은 동사의 시간성만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전이동사가 완료시상을 가질 때 ‘사건적 가치’와 ‘결과 상태’를 의미하는 상황을 면밀히 고찰하였다. 그 결과 베트의 주장과는 달리 완료시상이 ‘결과 상태’를 의미할 때는 화자의 의도가 개입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화자의 개입에 의하여 비전이 상황을 표상하는 행위동사도 ‘결과 상태’를 의미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 우리 연구의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시상은 화자의 의도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인데,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문장의 상황이 지향하는 논증방향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자의 의도는 발화체 수준에서의 시상 해석을 위한 관건인 것이다.

참고문헌

- Cintas (Pierre), Desclès (Jean-Pierre), 「Signification des temps grammaticaux」, 『Le Français dans le monde』, no 214, 1988.
- Comrie (Bernard),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Desclès (Jean-Pierre), Ro (Hee-Jin), Opérateur aspecto-temporels et Logique combinatoire, Mathematics and Social Sciences (49e année, n° 194, Laboratoire LaLIC (Langues, logiques, Informatique et Cognition), Université de Paris-Sorbonne, 2011(2).
- Guillaume(Gustave), Temps et verbe, Théorie des aspects, des modes et des temps, Librairie Honoré Champion, 1970.
- Martin (Robert), Temps et aspect, Édition Klincksieck, 1971.
- Mellet (Sylvie), 「La valeur aspectuelle du présent」, BCN,CNRS, Nice, 2006. pp.1-10. PDF.
- Vendler (Zenon) 「Verbs and times」,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e University Press. 1967.
- Verkuyl (Henk), Vet (Co), Borillo (Andrée), Bras (Myriam), Le Draoulec (Anne), Molendijk (Arie), de Swart (Henriëtte), Veters (Carl) & Vieu (Laure), 「Tense and aspect in sentences」, 『Handbook of French Semantics』, Institut Universitaire de France, 2004.
- Vet, (Co), La notion de ‘monde possible’ et le système temporel et aspectuel du français, in Langages(Le Temps Grammatical, logiques temporelles et analyse linguistique), Larousse, 64, 1981.
- Vet (Co), Temps, aspects et adverbes de temps en français

contemporain. Essai de sémantique formelle, Genève, Droz, 1980.
Wilmet (Marc), Aspect grammatical, sémantique, lexical : un problème de limites 』, 『La notion d'aspect』 , Université de Metz, 1978.

Résumé

Une étude sur l'Aspect Accompli en Français

Won, Yoosang(Wonkwang Univ.)

L'objectif de cet article est d'exploiter les temporalités et les valeurs de l'Aspect Accompli dans la langue française. Cet aspect s'oriente vers le point temporel accompli ou final d'un état ou d'une action. L'Aspect Accompli se compose d'un auxiliaire(avoir ou être) et d'un participe passé d'un verbe en question.

Le verbe a trois formes verbales (infinitif, participe présent, participe passé) au fur et à mesure que se déroule sur l'axe du temps la tension, cette tension est le temps impliqué dans n'importe quel verbe. Pour que le verbe exprime la situation (état ou action), il faut que ce verbe soit actualisé par un de ces trois formes. Le participe passé est seulement chargé de la détension, ceci prouve que l'action ou l'état se termine lorsqu'un énoncé à l'Aspect Accompli se prononce.

On compte trois Aspects dans la langue française, ce sont le Perfectif, l'Imperfectif et l'Accompli. Ce dernier Aspect engendre, sous la forme composé 'auxiliaire+participe passé', deux valeurs aspectuelles. L'une est une valeur événementielle, et l'autre est une valeur résultative. Ce qui est important pour l'interprétation de la valeur aspectuelle, c'est la volonté de l'énonciateur. La subjectivité de celui-ci gouverne toute la combinaison des signes linguistiques pour la production de la valeur aspectuelle.

■ Key Word: Aspect, Temps, Aspect Accompli, valeur aspectuelle, État, Événement, Processus

접수일자: 2016. 10. 31 심사일자: 2016. 12. 16 게재결정: 2016. 12. 17

